

축구협, 대표팀 감독 후보군 본격 접촉

# 한국 사령탑은 파리목숨? 선임견을 깨라

오소리오·케이로스 등 후보군 포함  
절박함·진정성 갖춘 감독 많지 않아  
쉽게 내치는 풍토...협상 어려움 가중

대한축구협회가 2022카타르월드컵을 준비할 국가대표팀 선임 사령탑 선임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유럽 출장을 다녀온 김판곤(49)국가대표선임위원회 위원장은 귀국 직후인 지난달 19일 서울 모처에서 선임소위원회 위원들과 2차 회의를 갖고 우선 협상 대상자들을 정리했다. 이 과정에서 후보군은 3명 안팎으로 압축됐고, 현재 1순위 후보와 협의 중이다.

축구계 인사들에 따르면 최근 북중미 멕시코와 결별을 사실상 확정된 후안 카를로스 오소리오(58·콜롬비아) 감독, 현 이란대표팀 카를로스 케이로스(65·

포르투갈) 감독 등이 후보군에 속한 것으로 전해진다. 협회 고위 관계자는 29일 "김 위원장이 당초 마련된 포트폴리오에 포함된 감독들을 포함해 최대한 다양한 후보들과 접촉한 것으로 안다"고 귀띔했다.

이르면 이번 주, 늦어도 8월 초까지 선임 사령탑을 선임하기로 결정한 협회는 감독과 그와 동행할 코칭스태프의 몸값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방침이나 진짜 문제는 돈이 아니다. 협회가 가장 필요로 하는 감독은 사령탑으로서 자신의 철학을 주입할 새 직장이 절박한 인물이다.

하지만 시기가 너무 좋지 않다. 4년 주기 월드컵이 끝난 지금은 좋은 인재(감독)를 모셔오려는 직장들(각 클럽·대표팀)이 차고 넘친다. 비슷한 조건으로는 전혀 경쟁이 될 수 없다는 얘기가. 가

능성도 적지만 카타르월드컵까지 4년 임기를 보장하더라도 이만큼 값이 높고 출중한 이력의 명장들에게 머나먼 동아시아에서의 도전은 망설여지기 마련이다. 앞서 김 위원장이 밝혔듯이 돈을 배제하고도 '철학과 방향이 뚜렷하고 절박하며 진정성을 갖춘' 감독은 많지 않다.

더욱이 유감스럽게도 한국축구는 우리의 생각처럼 매력적이지 않다. 통산 10회, 9회 연속 월드컵 본선에 올랐다는 사실이 유명 감독들의 선택에 도움을 주지 않는다. 유럽축구에 정통한 에이전트들과 관계자들은 "유럽축구는 한국에 대해 언제라도 손쉽게 감독을 내치는 나라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 급여는 차질 없이 쥐도 계약서 임기가 진짜 임기가 아니라고 여길 사람들이 많다"고 했다.

심지어 일부 인사는 "한국은 우직하

지 않다. (바히드 할릴호지치 감독이라는) 특수한 경우도 있었지만 최대한 감독을 존중하고 믿는 일본과 다르다.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등 중동(한국과) 비슷하나 적어도 그곳은 유럽과 지리적으로 가깝다는 장점이라도 있다"고 냉정하게 분석하기도 했다.

내년 1월 아랍에미리트연합(UAE)에서 개최될 아시안컵에서 성과가 나오지 않으면 카타르월드컵 아시아 지역예선에 앞서 경질될 수도 있다는 부정적인 선임관을 가진 감독들이 적지 않다는 얘기도 들린다. 공과를 냉정히 살펴기보다 일희일비하며 무작정 몰아세우는 현재의 풍토가 바뀌지 않는 한, 당장은 물론 향후 벌어질 수 있는 감독 선임 협상에도 우리는 주도권을 갖지 못한 '을'의 입장에 서게 될 가능성이 큰 셈이다.

남정현 기자 yoshike3@donga.com



한때 강등권에서 허우적대던 인천 유나이티드가 수비력을 바탕으로 생존 본능을 되찾아가고 있다. 28일 전남 드래곤즈 원정 3-1 승리 직후 기뻐하는 인천 선수들. 사진제공 | 한국프로축구연맹

## 생존 본능 발동한 인천? 2연승 질주...꼴찌 탈출 안데르센 감독 체제 자리 잡아

인천 유나이티드의 생존 본능이 또 다시 살아난 것일까.

인천은 28일 광양축구전용구장에서 열린 'KEB하나은행 K리그 2018' 20라운드 원정경기에서 전남 드래곤즈에 3-1로 승리했다.

지난 22일 FC서울을 맞아 2-1로 승리를 거두면서 16경기(7무9패) 무승의 늪에서 탈출한 인천은 2연승을 거두면서 분위기 반전에 이어 상승 곡선에 진입했다. 이와 함께 3승7무10패(승점16)로 탈꼴찌에도 성공하는 두 배의 기쁨을 누렸다.

인천은 올 시즌 내내 화끈한 공격축구란 새 컬러로 팬들에게 '보는' 재미를 선사해 왔다. 그러나 공격축구는 상대 역수에 실점 확률이 높아진다는 확실한 단점도 안고 있어 '이기는' 재미는 선사하지 못했다.

시즌 초반부터 수비가 무너졌다. 인천은 올 시즌 20경기에서 31골을 넣었다. 29일까지 K리그1 12개 팀 중 30골 이상을 기록한 팀은 5팀(전북 현대, 경남FC, 수원 삼성, 강원FC, 인천 유나이티드) 뿐이다. 7위~12위 팀 가운데에서는 인천이 유일하다. 무고사(11골·2도움)~문선민(9골·3도움)~아길라르(2골·6도움)로 이어지는 공격 진영은 상위권 팀들과 견줘도 밀리지 않을 정도다. 반면 무려 42골을 상대에게 헌납했다. 유일한 40점대 실점 팀이다.

월드컵 휴식기를 앞두고 새롭게 팀을 맡은 운 안데르센(55·노르웨이) 감독 체제가 자리를 잡으면서 수비도 안정화가 되고 있다는 점은 반가운 대목이다. 2연승을 하는 동안 인천은 5골을 넣고 2골만을 내줬다. 이제 힘겹게 찾은 공수 밸런스를 꾸준히 이어나가는 것이 과제다. 매년 강등권에 머무르면서도 끝내 K리그1에 살아남았던 인천의 생존본능이 또 다시 발휘되고 있다.

정지욱 기자

편집 | 고창일 기자 ico@donga.com



경남FC 김중부 감독은 후반기 선전 비결로 수비를 꼽았다. 3-2로 이긴 28일 FC서울 원정에서 오버헤드킥을 하고 있는 경남 말경(맨 오른쪽). 사진제공 | 한국프로축구연맹

## 경남 후반기 무패 비결은 수비 자신감

월드컵 휴식기에 수비라인 재정비  
김중부 감독 "제주전 무실점 큰 힘



경남FC의 후반기 무패행진이 이어지고 있다. 경남은 28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KEB하나은행 K리그1 2018' 20라운드 원정경기에서 홈팀 FC서울에 3-2로 승

리를 거뒀다.

이번 승리로 전북 현대에 이어 두 번째로 시즌 10승(6무4패) 고지에 오른 경남은 승점 36을 기록하면서 2위 자리를 지켜냈다. 월드컵 휴식기 이후 6경기 무패(4승2무) 행진도 함께 이어갔다.

경남을 이끌고 있는 김중부(53) 감독은 후반기 선전 이유를 수비에서 찾았다. 그는 "월드컵 휴식기 이전에 선수들의 체력이 떨어지면서 득점을 하고도 쉽게 실점을

허용하는 일이 반복되면서 고전을 했다. 휴식기 동안 수비를 재정비했다. 수비 공간과 좌우 이동 간격을 조절했고 특정 팀에 따라 수비 라인을 구체화시켰다"라고 말했다. 경남은 최근 2경기에서 수원 삼성과 서울을 맞아 각각 2실점 했지만, 월드컵 휴식기 이후 4경기 연속 무실점을 기록한 바 있다. 6경기에서 실점은 4골 뿐이다. 반대로 득점은 무려 10골이나 기록했다. 많이 넣고 적게 실점하니 자연스럽게 승리가 따라오고 있다.

김 감독은 "제주 원정(11일 제주 유나이티드)에서 무실점을 한 것이 선수들에게

좋은 영향을 줬다. 제주는 마그노의 패스와 킥능력이 좋고 2선 침투가 많은 팀인데 우리 선수들이 이를 견뎌내면서 자신감을 얻은 것 같다"고 말했다.

경남은 지난 25일 창원축구센터에서 열린 'KEB하나은행 FA컵' 32강전에서 서울에 승부차기 패배를 당하면서 탈락했다. 비록 K리그 경기는 아니었지만, 체력 소모가 컸고 정신적으로도 타격이 적지 않았던 상황에서 3일 만에 같은 상대를 만나 승리를 거뒀다는 점은 경남이 강팀으로서의 자임을 갖췄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정지욱 기자 stop@donga.com

## 이재성, 입단식 이틀 만에 데뷔전 '기대감 뽐뽐'

뉴캐슬 이적 기성용, 친선경기 교체출전 발렌시아 이강인도 2경기 연속 1군 무대

'새 등지' 유럽파, 순조로운 첫 출발

새로운 축구 인생을 여는 유럽파 태극전사들이 순조롭게 기지개를 펴고 있다. 프리시즌 친선경기에서 연달아 기회를 받으면서 새 시즌 전망을 밝히는 모습이다.

최근 K리그1 전북 현대에서 독일 분데스리가2 홀슈타인 킬로 자리를 옮긴 이재성(26)은 소속팀 합류 직후 곧바로 그라운드를 밟았다. 29일(한국시간) 독일 바이에른주 이스마닝에서 열린 SD 에이바르스(스페인)와 친선경기에서 후반 33분 교체투입됐다. 출전시간이 짧았던 탓에 공격 포인트는

올리지 못했지만, 빠른 데뷔전을 통해 이재성의 팀내 위상이 재확인됐다. 이재성은 26일 독일에 도착해 27일 입단식을 마쳤는데, 순 돌릴 틈도 없이 데뷔전에 투입되면서 구단의 기대치를 몸소 실감하게 됐다. 홀슈타인 킬은 경기 직후 구단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에서 온 이재성이 독일 데뷔전에서 뛰어난 능력을 뽐냈다"고 평했다.

뉴캐슬로 이적한 기성용(29)도 순조롭게 새 등지에 적응하고 있다. 29일 FC포르투(포르투갈) 원정 친선경기에서 후반 17분 조종 셀비를 대신해 그라운드를 밟았다. 25일 헝가리 이후 두 경기 연속 출

전. 이적 후 아직 선발출장은 없지만 기성용은 출전시간을 서서히 늘려가면서 주전 경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같은 날 발렌시아 이강인(17) 역시 1군 무대를 재차 밟았다. PSV 에인트호번(네덜란드) 원정에서 후반 26분 교체투입됐다. 기성용과 마찬가지로 이번 프리시즌에서 두 경기 내리 기회를 받으며 존재감을 높였다. 마르셀리노 가르시아 토랄 감독은 에인트호벤전 직후 "우리는 이강인과 같은 어린 선수들에게 상당한 희망을 가지고 있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고봉준 기자 shutout@donga.com



홀슈타인 킬에 새 등지를 쓴 이재성(오른쪽에서 2번째)이 29일(한국시간) SD 에이바르와 친선경기를 통해 독일 데뷔전을 마쳤다. 27일 구단 관계자들과 함께 입단식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는 이재성. 사진 | 홀슈타인 킬 구단 홈페이지